

09

가자! 미술관으로

- 1 미술관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2 학교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변화시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다.
- 3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 카텔란(Cattelan, Maurizio/이탈리아/1960~)
 무제(플래티넘 실리콘, 에폭시 유리 섬유, 스테인리스강, 머리카락, 옷, 신발 등/가변 크기/2001년)



“ 나는 미술관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야. 같이 가 볼까? ”

열린 공간에서 실물 작품을 감상하면 크기와 질감, 전시 공간과의 관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을 만나러 가 보자!



▲ 비엔날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 행사. 동시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알 수 있다.



▲ 아트 페어
 같은 장소에 다양한 상업 화랑(갤러리)이 모여 대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 갤러리(화랑)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 작품의 가치를 홍보하고 미술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을 한다.

미술관에 가면

미술관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이다. 사회·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작품과 만나기

작품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감상을 돕기 위해 주제별로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AUDIO GUIDE



▲ 오디오 가이드나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작품 해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 팸플릿을 참고하면 큐레이터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과 작가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응노미술관 전시 연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웰컴 투 PP'(2020년)

프로그램 일정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

국립현대미술관 이종섭 특별전 어린이 전시 감상 가이드

▶ 아트숍, 도서관

미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살펴보고 전시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국립현대미술관 이진희 컬렉션 특별전 도록

▶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작가의 예술 세계, 창작 과정 등과 관련된 체험을 진행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이지 않는 노력

미술관은 전시 작품 외에도 방대한 양의 소장품을 관리한다. 또 새로운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대중 앞에 선보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업한다.

▲ 작품 연구, 전시 기획

큐레이터는 작품을 수집하고 소장품을 관리하고 연구한다. 전시의 유형과 규모를 정하는 등 전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전시 공간 디자인, 설치와 홍보

디자이너는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시장을 완성한다. 또 포스터, 팸플릿, 도록 제작을 담당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미술 전문가까지 연령이 다양하고 수준이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 작품의 보존과 복원

소장품을 관리하고 훼손된 작품을 복원한다. 보존 과학자는 미술사와 재료를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워지는 미술관

오늘날 미술관은 대중이 미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과 소통을 지향한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형 설치 작품이나 몰입형 전시로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등 미술관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 버려진 공간의 재탄생



▲ **뱅크사이드 발전소**
(영국/1990년대 초)

▲ **엘리아슨**(Eliasson, Olafur/덴마크/1967~) **날씨 프로젝트**(2003년 영국 테이트 모던 전시 장면) 영국의 '테이트 모던'은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그중 터빈 홀은 미술관의 중앙 홀이자 기획 전시를 하는 장소이다. 매년 예술가들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 몰입형 미디어 아트



▲ **레 보 드 프로방스 미술의 채석장**(프랑스/1935년)



▲ **빛의 채석장**(Carrière de Lumière/프랑스/2012년) 프랑스에서 2012년 첫선을 보인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기능을 상실한 건물 등을 예술 공간으로 되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한 작품과 음악에 둘러싸여 작품에 온전히 몰입하는 독특한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 개방형 수장고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한국/2022년)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이다. 특히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에 관람객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여 작품 보존과 전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알고 가기 만질 수 있는 전시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 문구로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등이 있다.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지만 이러한 규칙 아래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 작품을 즐길 방법이 없었다. 이 같은 규칙의 한계를 넘어 작품을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시각 예술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는 국내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시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도 그림을 손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차원 이미지와 점자로 된 글을 제공한다.

▶ **프라도 미술관**(에스파냐/2015년) 3차원 이미지를 손끝으로 감상하는 모습



미술 작품을 찾아 떠나는 온라인 여행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 감상을 즐겨 보자.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로 다가온 작품



▲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s Projector) 증강 현실 기술로 원하는 공간에 실물 크기의 예술 작품을 놓아 볼 수 있다. 주변 배경과 작품의 상황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재미 있는 합성 사진을 얻을 수 있다.

3차원으로 살펴보는 우리 문화유산



▲ 금제 여래 입상(금/높이 14cm/6~7세기)을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는 불상의 모습을 다각도로 볼 수 있다. 사진만으로는 보기 힘든 뒷모습과 밀면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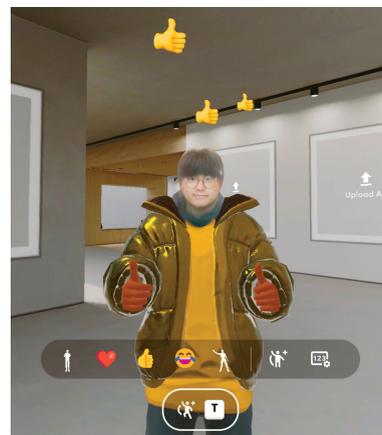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로 즐기는 전시회



▲ 우피치 미술관 온라인 전시 미술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이다. 전시실 공간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고 VR 기기를 활용하여 더욱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현실을 뛰어넘는 메타버스(metaverse) 전시회



▲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가상 현실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전시회를 열어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 세계 다양한 친구와 소통하면서 작품을 감상한다. 사진을 넣어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전혀 다른 아바타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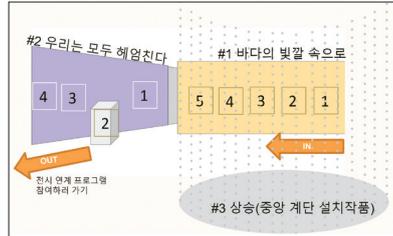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예술을 경험하는 전시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친구들과 함께 예술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과정 1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전시회 기획하기

STEP 1 > 학교 공간 탐색

모동원	김민선 외 4명
전시 제목	I SEA YOU
전시 주제	학교에서 바다를 느끼다
전시 장소	중앙 계단 앞 로비
기획 의도	일상에 지쳤을 때 바다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시원한 해방감과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좋겠다.
전시 구성	1관: 바다의 빛깔 속으로 2관: 우리는 모두 해엄친다 3관: 상승(중앙 계단 설치 작품)

STEP 2 > 전시 공간 디자인



STEP 3 > 설치와 홍보



- ▲ 전시의 주제와 장소, 전시할 작품 목록을 계획한다.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자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점을 예상해 본다.
- ▲ 관람자의 동선과 작품의 위치, 순서 등을 계획한다.
- ▲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회를 홍보한다.

과정 2 작품으로 들어가는 설치 작품 제작하기



▲ 설치 공간의 구상도를 그린다. 전시와 공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료와 제작 방법을 꼼꼼하게 계획한다.



▲ 친구와 협업하여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과정 3 함께 이해하고 즐기는 전시회 운영하기



▲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가와 작품 정보를 전시 주제와 연결하여 해설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다.



▲ 전시 주제와 관련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 완성한 작품을 설치하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한다.



- 미술관의 역할과 특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
- 학교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변화시켜 소통하고 화합하였는가?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

그림이 걸린 방은
생각이 걸린 방이다

- 레이놀즈 -



07 눈에서 마음으로

» 미술 감상

- 미술 작품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즐기는 활동이다.

»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

보고 느끼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보고, 첫인상이나 궁금한 점을 적어 본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작품 속 요소에서 단서를 찾아본다.
자세히 관찰하기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여 작품에 표현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다.
의미 탐구 (해석)하기	작품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조사하고 작품의 의미를 탐구한다.
내면화하기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고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나만의 관점에서 작품의 종합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

» 작품 분석하기

내용	작품에 표현된 대상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찾아 서술한다.
형식	- 조형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어떤 표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평면(드로잉, 회화, 판화, 전통 회화 등), 입체(조소, 설치, 디자인, 공예 등) - 재료와 기법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한다.

08 보이는 것 너머로

»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 상징과 도상으로 주제 해석하기
-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주제 해석하기
- 작가의 삶으로 주제 해석하기
- 형식 또는 양식의 특징으로 주제 해석하기

부처님 손에 담긴 이야기

- 시무외인: 부처가 중생을 두려움과 고난에서 해소시키는 자비를 뜻한다.
- 여원인: 부처가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덕을 의미한다.
- 지권인: 지권인의 오른손은 불계, 왼손은 중생계를 뜻하며 부처와 중생, 미혹과 깨달음이 결국 하나임을 의미한다.

양식

- 시대나 기법의 특징에 따라 독특하게 구별되는 예술 형식을 뜻한다.
-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포비슴(야수파), 표현주의, 큐비즘(입체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추상 표현주의, 팝 아트, 미니멀리즘, 극사실주의 등이 있다.

»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

- 단독 감상: 하나의 작품에서 보이는 요소와 정보 등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 비교 감상: 둘 이상의 작품을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09 가자! 미술관으로

» 미술 작품을 만나는 곳

- 미술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이다. 사회·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 갤러리: 미술 작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작품의 가치를 홍보하고 미술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을 한다.
- 아트 페어: 같은 장소에 다양한 상업 화랑이 모여 대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이다.
- 비엔날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 행사이다. 동시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알 수 있다.

» 미술관 관람 예절

- 전시장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 안내 요원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다.
- 휴대 전화는 진동 혹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다른 방문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람한다.
- 작품 접근 표시선을 지키고 작품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예절 캠페인 '뮤지엄 매너의 마스코트'

어떤 매너를 의미하는 것일까?

» 미술관 사람들이 하는 일

- 작품 수집과 연구
- 전시 기획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작품 보존과 복원
- 전시 공간 디자인, 설치와 홍보